13-54 [통권 571호] 2013. 12. 27.

새로운 경제시스템 창출을 위한

경제주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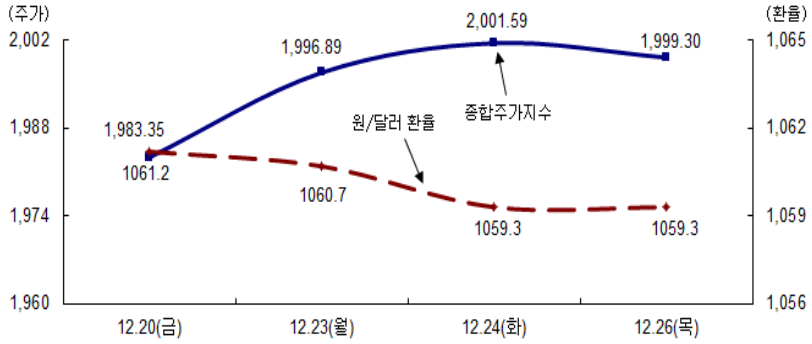
Weekly Economic Review

□ 2014년 글로벌 10대 트렌드

현대경제연구원

Better than the Best!

週間 主要 經濟 指標 (12.20~12.26)



주가	환율	금리	유가
15.95	-1.90	0.00	1.41
1999.30	1059.30	2.88	108.50
(종합주가지수)	(원/달러)	(국고채 3년물)	(두바이油)

차 례

주요 경제 현안 1

□ 2014 글로벌 10대 트렌드 1

주요 국내외 경제지표 22

□ 본 자료는 기업 경영인들을 위해 작성한 국내외 경제 경영 주요 현안에 대한 분석 자료입니다.
□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원의 공식의견이 아닌 연구자의 개인 견해임을 밝혀두며, 보고서 인용 시에는 반드시 출처를 명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 괄 : 한 상 완 경제연구본부장 (2072-6230, swhan@hri.co.kr)

□ 작 성 : 이 부 형 수석연구위원 외 (2072-6306, leebuh@hri.co.kr)

Executive Summary

□ 2014년 10대 글로벌 트렌드

■ 2014년에는 글로벌 정치·외교, 경제, 산업·경영, 과학기술, 사회·문화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10가지 트렌드가 부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 글로벌 정치・외교

① 글로벌 거버넌스(Global Governance)의 위기 : 2014년에는 강력한 리더십에 의한 글로벌 거버넌스의 부재로 다양한 지역 내 갈등이 해결되지 못하여 불안이 고조될 우려가 있다. 전통 우방국과의 의견 대립과 중국의 부상 등으로 미국의 세계경찰지위가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중동·아시아·아프리카·유럽 등 세계 각지에서는 영토와 자원 등을 둘러싼 지역 분쟁이 지속될 것이다.

■ 글로벌 경제

② 황제의 귀환(Le retour de l'Empereur) : 글로벌 경제위기의 진원지였던 선진국은 강력한 양적완화 정책을 비롯한 지속적인 경기대책에 힘입어 빠른 경제회복세를 달성할 것이다. 미국, 유로존, 일본 등으로 대표되는 선진국 경제는 자금 조달과 수출 여건이 불리해지는 신흥국을 이끌고 세계 경제성장을 견인하면서 글로벌 경제 주도권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된다.

③ 그레이 스완(Grey Swan) 등장 우려 : 2014년 세계 경제 회복 기대 속 '그레이 스완'으로 대변되는 일부 국가들의 내부 리스크가 세계 경제의 불안을 야기할 가능성도 있다. 유럽 재정위기국의 은행부실화 가능성과 선진국 출구전략에 따르는 개도국 외환 위기 가능성 등이 세계 경제 회복세를 위협하는 '그레이 스완'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그레이 스완' 현상이 심화될 것에 대비하여 국내 금융시장 및 거시경제 안정성 제고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④ 에너지 헤게모니(Energy Hegemony) 변화 : 북미지역의 '비전통 에너지 혁명'으로 에너지 패권이 OPEC(석유수출기구)을 중심으로 한 중동지역, 러시아에서 미주지역 등으로 분산되면서 에너지 헤게모니가 변화될 것이다. 북미 지역 주도의 비전통 에너지 생산 확대는 에너지 공급선 다변화, 에너지 가격 하향 안정화 등 향후 에너지 시장과 세계 경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글로벌 산업·경영

⑤ **디지털 소재 혁명(Digital-drived Materials Revolution) 본격화 :** 디지털 패브리케이션 기술의 발전으로 나노, 바이오 소재 등의 개발과 활용이 활발해지면서 디지털 소재 혁명이 시작될 전망이다. 산업 혁신의 역사는 섬유, 금속, 화학 등 각 시대가 요구하는 소재 기술의 발전에 따라 형성되었다. 21세기 산업 혁신은 인간과 환경의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둘 전망으로 특히 디지털 기술에 기반을 둔 나노와 바이오 소재의 발전은 이를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⑥ **세계 제조업 지형도(Manufacturing Map)의 개편 :** 세계 공장으로서의 역할이 점점 약화되고 있는 중국을 대신할 포스트 차이나(Post-China) 국가들이 각축을 벌이고 있으며, 선진국들이 제조업 부흥책을 강력히 추진하면서 세계 제조업 지형도가 개편될 것이다. 특히, 선진국들의 고부가 융합상품 개발을 위한 첨단제조방식의 도입은 세계 시장에서의 국가 간 경쟁을 더욱 치열하게 만들 것이다

■ 글로벌 과학기술

⑦ **클라우드 네트워크(Cloud Network) 본격화 :** 클라우드 컴퓨팅과 소셜 네트워크의 발전으로 공유 정보를 활용한 창의적 문제해결 사례가 빠르게 증가할 전망이다. 우선, 경제주체들의 클라우드 네트위크 활용으로 자원 이용의 효율성이 향상될 것이다. 또, 사물과 정보의 유통방식 변화로 산업 가치사슬이 재편되는 가운데, 정보 관리 권한의 중요성이 부각될 것으로 예상된다.

⑧ **호모 로보틱스(Homo Robotics)의 등장 :** 인간과 로봇의 경계가 불분명한 신인류(호모 로보틱스)가 상상의 차원을 넘어 현실 세계에 출현할 전망이다. 산업, 생활, 의료, 국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응용 사례가 증가하는 가운데, 보안・윤리・사회규범 등을 둘러싼 논란도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 글로벌 사회·문화

⑨ **요우커(遊客)의 진화 :** 일인당 소득 증가, 해외여행에 대한 규제 완화 등으로 인해 중국인 관광객(요우커)의 진화가 본격화되고 있다. 중국인 해외 관광객은 연평균 15.1%씩 증가하여 2012년 기준으로 약 8,300만명에 이르고, 이들이 소비하는 금액은 1,020억 달러로 전세계 1위에 해당한다. 또한 중국인 관광객의 소비트렌드는 저소비형, 단순 관광형에서 고소비형, 복합 관광형으로 변화하고 있다. 요우커의 진화에 대응하는 맞춤형 전략을 마련하여 중국인 관광객을 선점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⑩ **초국적 인류(Transnational Human)의 출현 :** 국적을 초월해 인류의 보편적 가치, 공동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활동을 벌이는 '초국적 인류(Transnational Human)'가 확산될 전망이다. 정치적으로는 온라인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는 '초국적 이익 집단'들의 영향력이 증가할 것으로, 경제·경영 분야에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에 대한 관심이 더욱 증대될 전망이다. 한편, 사회·문화 분야는 SNS를 통한 공동의 관심과 해결 방안을 공유하는 모임이 더욱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I. 글로벌 10대 트렌드 선정

○ **주요 국내외 미래 분석 자료 등을 토대로 2014년 글로벌 정치·외교, 경제, 산업·경영, 과학기술, 사회·문화의 5개 분야에서 새롭게 주목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10대 트렌드를 선정해보면 다음과 같음**

- 정치・외교 부문에서 부각될 것으로 예상되는 트렌드로는 '글로벌 거버넌스(Global Governance)의 위기'가 선정됨

- 경제 부문에서 부각될 것으로 예상되는 트렌드로는 '황제의 귀환 (Le retour de l'Empereur)', '그레이 스완(Grey Swan) 등장 우려', '에너지 헤게모니(Energy Hegemony) 변화'의 3개 트렌드가 선정됨

- 산업・경영에서 부각될 것으로 예상되는 트렌드로는 '디지털 소재 혁명(Digital-drived Materials Revolution)본격화', '세계 제조업 지형도의 개편'의 2개가 선정됨

- 과학기술 부문에서 부각될 것으로 예상되는 트렌드로는 '클라우드 네트워크(Cloud Network) 본격화', '호모 로보틱스(Homo Robotics)의 등장'의 2개가 선정됨

- 마지막으로 사회・문화 부문에서 부각될 것으로 예상되는 트렌드로는 '요우커(遊客)의 진화', '초국적 인류의 출현'의 2개가 선정됨

< 2014년 글로벌 10대 트렌드 >

주요 분야	트렌드 내용
① 정치·외교	1. 글로벌 거버넌스(Global Governance)의 위기
② 경제	2. 황제의 귀환(Le retour de l'Empereur)
	3. 그레이 스완(Grey Swan)등장 우려
	4. 에너지 헤게모니(Energy Hegemony) 변화
③ 산업·경영	5. 디지털 소재 혁명 (Digital-drived Materials Revolution) 본격화
	6. 세계 제조업 지형도(Manufacturing Map)의 개편
④ 과학기술	7. 클라우드 네트워크(Cloud Network) 본격화
	8. 호모 로보틱스 (Homo Robotics)의 등장
⑤ 사회·문화	9. 요우커(遊客)의 진화
	10. 초국적 인류(Transnational Human)의 출현

Ⅱ. 글로벌 10대 트렌드의 주요 내용

1. 글로벌 거버넌스(Global Governance)의 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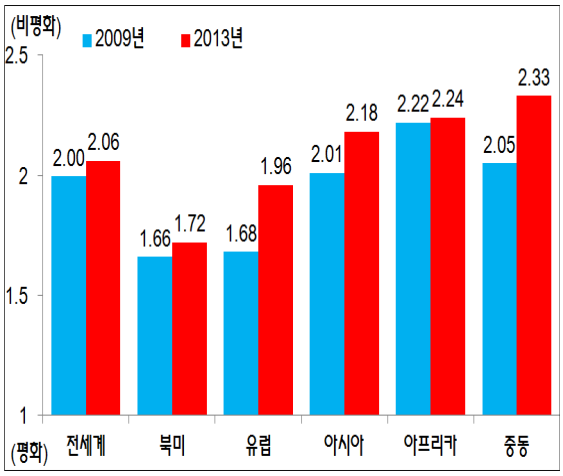
○ **(의미) 강력한 리더십에 의한 글로벌 거버넌스 부재로 다양한 지역 내 갈등이 해결되지 못한 채 불안 양상이 지속되고 지역 및 국가간 분쟁도 확산**

- 국제사회의 다원화로 각국의 주권의식과 국력이 성장하여 충돌 가능성은 높아졌으나, 이를 중재하거나 해결하는 주요국과 국제기구의 역할에 한계
  ·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국제적 영향력이 약화되었으며, G-2로 부상한 중국이나 UN 등 국제기구는 강력한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하기는 역부족

○ **(내용) 미국의 단일 패권이 약화되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거버넌스가 나타나지 않아 지역 내 및 국가간 분쟁이 확산, 지정학적 불안정 지속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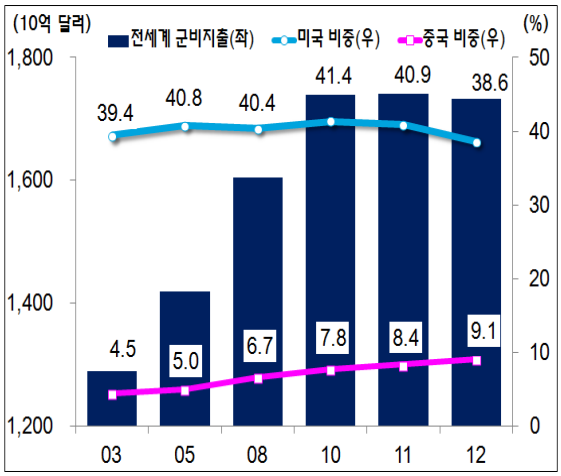
- **세계평화지수**[1] **악화 :** 분쟁지역의 확산으로 세계평화지수가 2009년 2.00에서 2013년 2.06으로 3% 악화
  · **(중동·유럽의 지수 악화)** 중동은 시리아 내전으로 인한 군비 경쟁으로, 유럽은 스페인·그리스·포르투갈 등에서 경기 침체로 정치적 불안정성이 증대하여 평화지수가 2009년 대비 각각 0.28씩 상승

< 세계평화지수(GPI)의 추이 >



자료 : Institute for Economics and Peace(IEP).
주 : 1(평화)~4(비평화)를 의미.

< 세계군비지출 비중 추이 >



자료 : SIPRI, Military Expenditure Database 2013.

1) 22개의 개별 지표를 고려해서 162개 국가에서 현재 진행중인 국내 및 국제 분쟁, 사회의 안전 및 보안 그리고 군사화 등을 측정.

- **미국의 세계경찰지위 약화 :** 전통 우방국과의 의견 대립과 중국의 부상 등으로 미국의 패권이 흔들리고 있음
  - **(우방국과의 갈등 표출)** 중동 이슈 등을 둘러싸고 영국·독일·프랑스 등 전통 우방국 및 사우디아라비아·파키스탄·이스라엘 등 중동 우방국과 의견 대립
  - **(세계군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감소)** 미국은 2009년 41.0%에서 2012년 38.6%로 감소한 반면, 중국은 2009년 7.5%에서 2012년 9.1%로 증가
  - **(미중간 동북아 패권 경쟁 심화)** 중국이 경제·군사력 신장을 바탕으로 국제정치·군사·경제적으로 동북아 패권을 장악하려는 힘의 대결을 시도

- **중동,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등 분쟁지역 확산 :** 영토 분쟁과 자원 분쟁 등을 둘러싼 지역 분쟁 지속
  - **(중동 분쟁 심화 우려)** 2011년 시작된 시리아 내전, 2013년 이집트 군부 쿠데타로 인한 정정 불안 등 안보 불안 요인 상존과 핵 협상 타결을 계기로 한 이란의 부상으로 역내 패권 경쟁 심화 우려
  - **(동북아 위기 고조)** 20년 가량 지속된 북핵 문제를 비롯, 센카쿠(釣魚島) 열도·독도 문제와 이어도 상공을 방공식별구역(ADIZ)에 포함하는 문제 등을 놓고 한중일 3국 간 영토분쟁 등으로 역내 불안정 고조
  - **(아프리카 분쟁 지속 우려)** 북부아프리카를 중심으로 자원개발권 및 영유권을 둘러싼 분쟁과 부족간 갈등 및 종교 분쟁 등으로 적대 종족 말살을 위한 대규모 학살 등이 지속 우려
  - **(동유럽 갈등 고조 가능성)**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몰도바 등 구소련국과 EU의 협력에 크게 반발, 이들 국가에 대한 가스공급 중단 등 강력한 무역 보복 위협 정책을 펴고 있어 이를 둘러싼 EU-러시아간 외교·경제 갈등 고조 우려

○ **(시사점) 국제사회와의 협력 체제를 강화하는 한편, 역내 안정화 도모 및 자원 분쟁에 대비한 외교적 노력이 필요**

- **미·중과의 정치·경제적 유대를 공고화하는 동시에 국제사회와의 협력체제 강화 :** G-2 이외에서 UN, APEC, G-20 등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강화

- **역내 안정화 노력 강화 :**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동북아평화협력구상,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등 외교·안보 구상의 구체화·현실화 노력 강화

이해정 연구위원(2072-6226, hj1ee@hri.co.kr)

2. 황제의 귀환(Le retour de l'Empereu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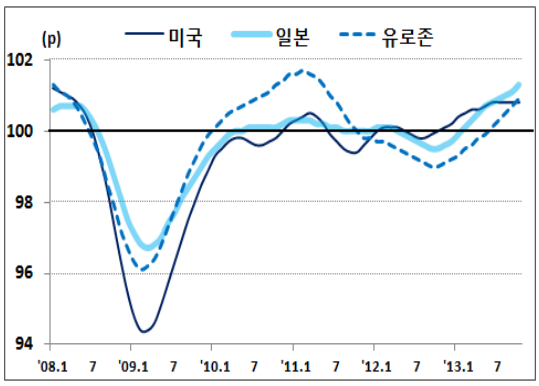
○ (의미) 극심한 경제 침체를 경험했던 선진국이 경기 부양을 위한 정책 효과에 힘입어 향후 빠른 경제 회복세를 달성하고 세계 경제를 이끌고 나갈 것임

- 세계경제에서 '황제' 국가는 세계 기축통화국인 미국과 근대 산업혁명의 진원지인 유로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눈부신 성장을 이룩한 일본을 일컬음

○ (내용) 글로벌 경제위기의 진원지였던 선진국은 경기부양 정책과 자산가격 상승, 소비경기 회복 등에 힘입어 경제 회복세를 달성하여 글로벌 경제 주도권을 회복

- **선진국 경제, 2014년 회복 전망** : 선진국 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침체에서 벗어나 2014년에는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
  - **미국** : 경기부양을 위한 통화 및 재정정책 시행과 함께 정치적 불확실성이 완화되면서 경제 회복세는 탄력을 받음
  - **일본** : 엔저에 따르는 수출 및 생산비용 경쟁력 향상으로 기업 실적이 빠르게 개선되면서 경기 회복세 지속 전망
  - **유로존** : 재정위기의 잔해가 남아있는 남유럽국가는 회복세가 더디겠지만, 독일 등 북유럽을 중심으로 유로존은 구대륙의 저력을 보이며 플러스 성장으로의 반등 전망

< 주요 선진국 경기선행지수 >



자료 : OECD.

< 주요 선진국 경제성장률 추이 및 전망 >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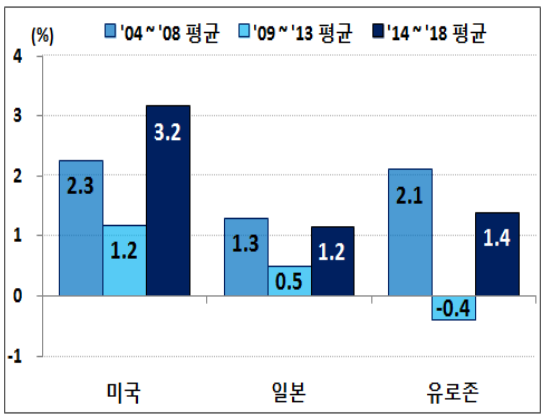
구분	2011	2012	2013	2014
선진국	1.7	1.5	1.2	2.0
미국	1.8	2.8	1.6	2.6
일본	-0.6	2.0	2.0	1.2
유로존	1.5	-0.6	-0.4	1.0
독일	3.4	0.9	0.5	1.4
프랑스	2.0	0.0	0.2	1.0
이태리	0.4	-2.4	-1.8	0.7
스페인	0.1	-1.6	-1.3	0.2

자료 : IMF(WEO, 2013.10).
주 : 2013년 이후 전망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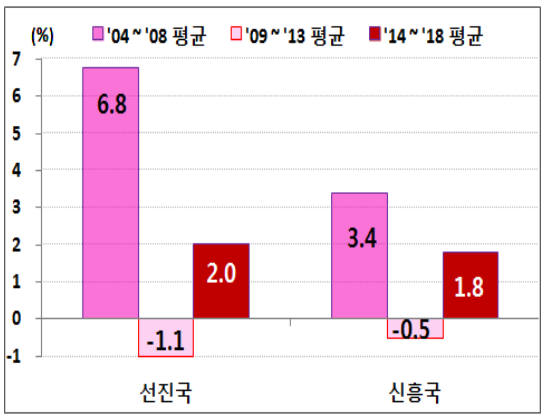
- **2014년 이후에도 견조한 성장세 유지 기대** : 향후 미국과 일본, 유로존의 평균 경제성장률은 과거에 비해 높은 수준을 달성하며 선진국 경제 회복 본격화 전망
  - 경기부양 정책 지속과 자산가격의 상승에 따른 소비 회복 등으로 선진국 경제의 회복세가 빨라질 것임
  - 미국과 일본, 유로존 모두 향후 5년간 평균 경제성장률은 과거 5년간에 비해 높은 수준을 달성할 전망

- **글로벌 경제성장 견인** : 내수경기와 투자 회복으로 선진국의 경제 회복세는 탄력을 받아 신흥국 경기 둔화를 상쇄시키며 글로벌 경제 주도권을 회복할 전망
  - 미국 통화정책의 정상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금리 상승 및 일본 엔저 현상 지속 등의 요인으로 신흥국의 자금조달 여건 악화와 수출 부진 등이 우려
  - 선진국의 1인당 실질GDP 증가율은 과거 5년간 평균 -1.1%에서 향후 5년간은 2.0%로 3.1%p 상승하는 반면, 동기간동안 신흥국의 1인당 실질GDP 증가율의 상승폭은 2.3%p에 그칠 전망
  - 신흥국보다 높은 수준인 선진국의 1인당 GDP를 고려하면[2], 선진국의 빠른 경제성장세가 상대적으로 느린 신흥국의 경제성장세를 상쇄할 것으로 기대

< 주요 선진국 경제성장률 >



< 선진국 및 신흥국 1인당 실질GDP 증가율 >



자료 : IMF(WEO, 2013.10).
주 : 경제성장률 및 1인당 실질GDP 증가율은 각 년도 자료의 5개년도 평균치.

○ **(시사점) 선진국이 이끄는 세계경제 성장의 기회 요인을 활용하기 위한 고부가가치 제품의 개발 및 판매 전략 수립과 새로운 국제무역 질서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공조체제 확립에 동참**

홍준표 연구위원(2072-6214, jphong@hri.co.kr)

2) 구매력지수(Purchasing Power Parity) 기준으로 2012년 현재 선진국의 1인당 GDP는 40,672 달러이며, 신흥국은 6,967 달러(자료 : IMF, 2013년 10월).

3. 그레이 스완(Grey Swan)[3] 등장 우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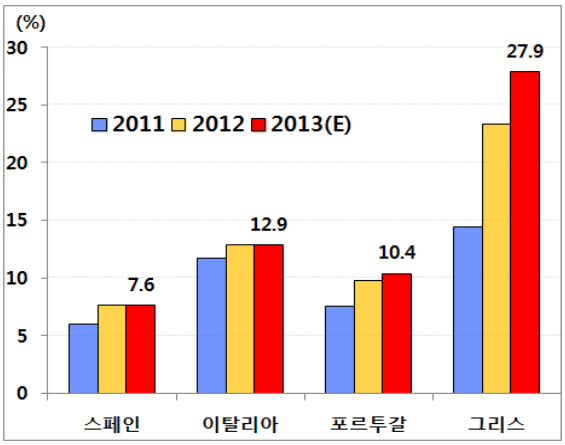
○ **(의미) 2014년 세계 경제 회복 기대 속 '그레이 스완'으로 대변되는 일부 국가들의 내부 리스크가 세계 경제의 불안을 야기할 가능성 상존**

- 2014년 세계 경제는 전반적인 회복세를 보일 전망이나, 일부 국가들의 리스크가 해결되지 않고 상존하면서 세계 경제를 위협하는 '그레이 스완'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

○ **(내용) 2014년 유럽 재정위기국의 은행부실화 가능성과 개도국 외환 위기 가능성 등이 세계 경제 회복세를 위협하는 '그레이 스완'이 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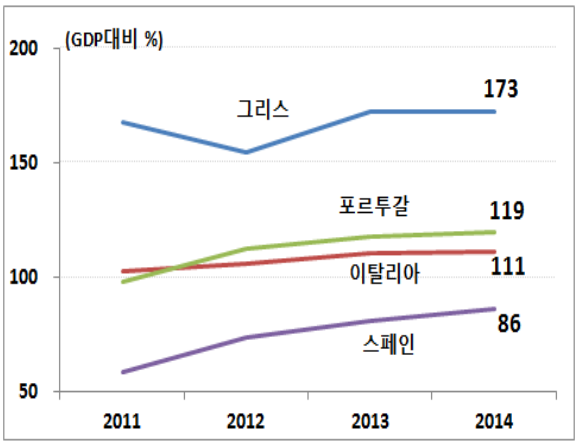
- **유럽 : 재정위기국가(PIGS)의 부실채권(NPL) 증가에 따른 은행 부실화 및 국가부채 증가 등으로 재정위기 재발 우려 상존**
  - PIGS는 최근 금리 하락에도 불구하고 부실채권 비율이 상승하여 부실채권 누적에 따른 은행 부실화 및 금융 불안 재발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음
  - 경기부양을 위한 국채 발행 증가로 PIGS의 국가 부채 증가세가 지속됨에 따라 국채 이자 지급 확대 및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정부지출 위축이 가시화될 경우, PIGS 국가들의 재정위기가 재현될 수 있음

< 유로존 PIGS 부실채권(NPL) 비율 >



자료 : IMF, Financial Soundness Indicator.
주 : 부실채권비율은 은행의 전체 채권규모 대비 부실채권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

< 유로존 PIGS 정부부채 추이와 전망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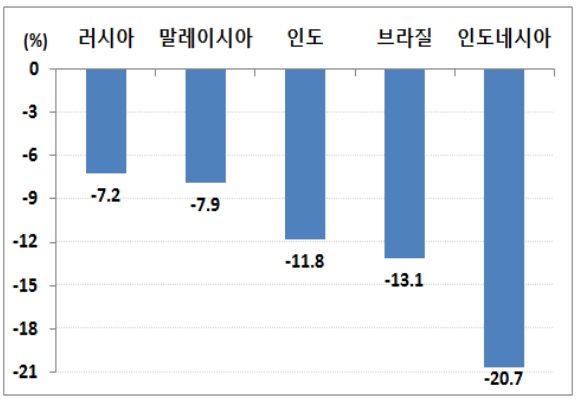


자료 : IMF, WEO.

3) 나심 니콜라스 탈레브(Nassim Nicholas Taleb)의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사건이나 상황의 발생'을 의미하는 블랙 스완에서 파생된 용어로 어느 정도 예측은 가능하지만 별다른 해결책이 없는 상태를 말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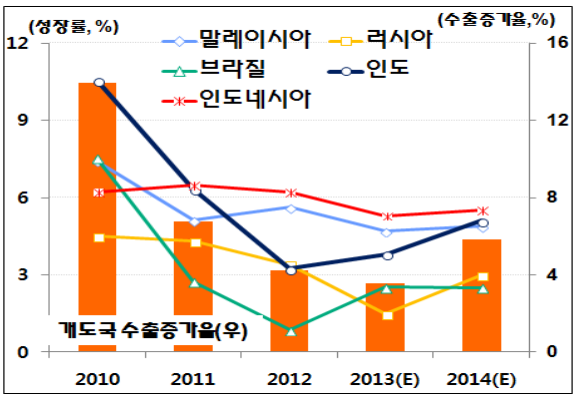
- **개도국 : 미국 양적완화 축소 등 선진국의 출구전략이 본격화될 경우 개도국 금융시장이 큰 혼란을 겪을 수 있음**
  - 경기부양을 위한 국채 발행 증가로 PIGS의 국가 부채 증가세가 지속됨에 따라 국채 이자 지급 확대 및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정부지출 위축이 가시화될 경우, PIGS 국가들의 재정위기가 재현될 수 있음
  - 2014년 1월부터 미연준은 양적완화 조치를 단계적으로 축소할 방침이며, 향후 미국 경기 상황에 따라 양적완화 축소 규모가 확대될 경우 그동안 개도국에 유입된 투자자금의 급격한 이탈로 금융시장 혼란이 우려
  - 실제로 지난 5월 양적완화 축소 가능성이 제기된 후 개도국 금융 불안이 야기되면서 인도네시아(-20.7%), 브라질(-13.1%) 등 통화가치가 급격히 절하
  - 브라질, 인도, 러시아 (BRI's)의 성장률과 수출 부진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 불안 현상마저 겹칠 경우 개도국발 '그레이 스완'의 출현도 가능

< 주요 개도국 최근 환율 절하폭 >



자료 : Bloomberg.
주 : 2013년 연초 환율대비 12월 24일 현재 환율 절하폭.

< 주요 개도국 성장률 및 수출증가율 >



자료 : IMF. WEO.
주 : 개도국 수출증가율은 개도국 전체의 평균 수출 증가율임.

○ **(시사점) 2014년 그레이 스완 현상이 심화될 것에 대비하여 국내 금융시장 및 거시경제 안정성 제고 노력이 강화되어야 함**

- 2014년 유로존 PIGS의 불안과 개도국 외환위기가 '그레이 스완'으로 부상할 경우, 국내외 경기 회복세는 위축 또는 부진에 빠질 우려
  - 갑작스런 금융시장의 충격과 신용 경색에 대비한 비상대책 마련 및 통화안정성 제고, 적정 외환보유고 확보 및 국제 공조시스템 강화가 필요
  - 지속적인 재정건전성 제고, 내수 시장 활성화, 일자리 창출, 수출 경쟁력 강화, 구조 개혁 등을 통한 거시경제 안정성 확보

최성근 선임연구원(2072-6223, csk01@hri.co.kr)

4. 에너지 헤게모니(Energy Hegemony) 변화

○ (의미) 북미지역의 '비전통 에너지[4] 혁명' 등으로 에너지 패권이 OPEC(석유수출기구)을 중심으로 한 중동지역, 러시아에서 미주지역 등으로 분산되면서 에너지 헤게모니가 변화될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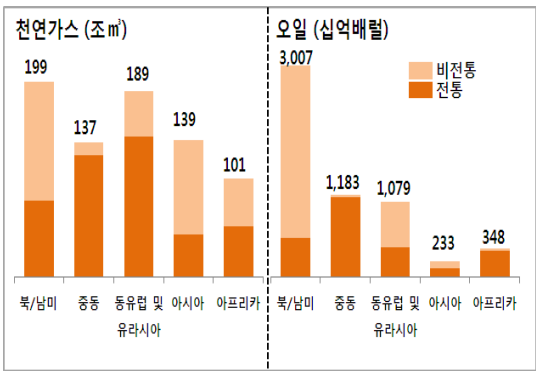
- 에너지 헤게모니는 풍부한 전통 오일과 가스 매장량을 가진 중동지역과 러시아가 글로벌 에너지 시장을 지배한 것을 의미

- 비전통 에너지는 전통 에너지인 기존의 석유와 가스의 생산방식과 다른 방법으로 생산되는 에너지로 대표적으로 오일샌드, 셰일오일, 셰일가스 등이 존재

○ (내용) 북미 지역 주도의 비전통 에너지 생산 확대는 향후 에너지 시장과 세계 경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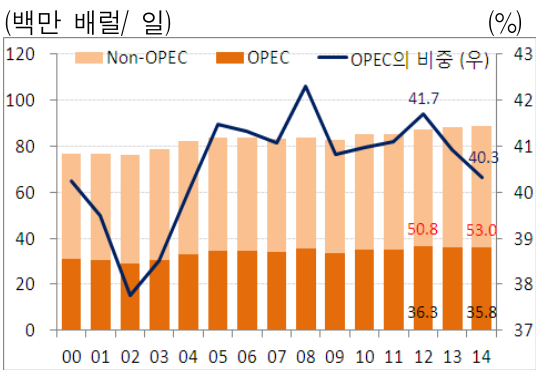
- (에너지 패권 분산) 향후 미주지역이 새로운 가스 및 오일 생산국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
  - 최근 채굴기술 발달로 비전통 가스와 오일의 가채 매장량 측정이 가능해진 가운데, 북남미 지역의 가스와 오일 가채매장량이 가장 풍부한 것으로 나타남
  - 국제 유가 급락 우려에 따른 OPEC의 감산에도 불구하고, 북미지역의 셰일오일, 오일샌드 생산 급증에 힘입어 비OPEC의 오일 공급 증가

< 지역별 천연가스 및 오일 가채매장량 >



자료 : International Energy Agency, *World Energy Outlook 2013.*

< OPEC와 Non-OPEC 오일 생산량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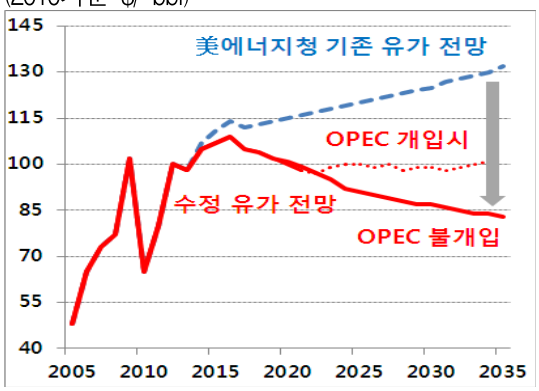
자료 : US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International Energy Outlook 2013.*

4) 비전통 에너지는 전통 에너지인 기존의 석유와 가스의 생산방식과 다른 방법으로 생산되는 에너지를 의미, 크게 비전통 오일과 비전통 가스로 구분, 비전통 오일은 초중질유(오일샌드), 케로진 오일(셰일오일), 라이트 타이트 오일 등, 비전통 가스는 셰일가스, 탄층메탄가스, 타이트 가스 등을 포함.

- **(국제 에너지 가격 안정화) 풍부한 매장량을 기반으로 한 비전통 에너지 보급이 확대되면 점차 에너지 가격이 하향 안정화를 이룰 전망**
  - 셰일오일 등 비전통 오일 공급으로 국제유가는 2035년 EIA(美에너지정보청) 유가 전망치 $133/배럴보다 약 $33~$50 정도 낮아질 전망
  - 또한, 미국의 천연가스 생산 증대로 아시아 및 유럽에 미국의 LNG 공급이 크게 확대되면 아시아 및 유럽의 천연가스 수입가격이 2013년부터 2035년까지 약 7%~14% 낮아질 전망

< 셰일오일 생산에 따른 국제 유가 전망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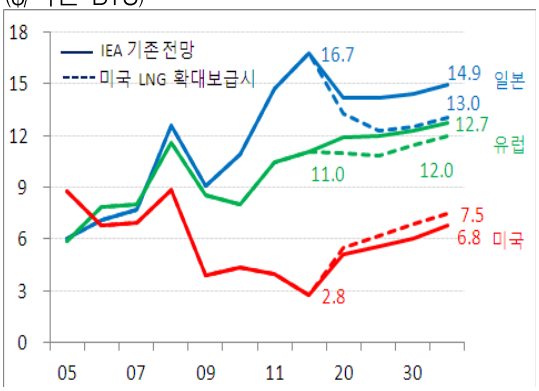
(2010기준 $/ bbl)



자료 : PWC, Shale Oil : the next energy revolution, feb, 2013.

< 지역별 천연 가스 가격 전망 >

($/백만 BTU)



자료 : BP,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June 2013, IEA, World Energy Outlook 2013.
주 : 일본과 유럽은 비용, 보험, 운송비가 포함된 LNG 수입 가격, 미국은 Henry Hub 가격임.

- **(국가별 편익 차별화) 비전통 에너지 생산에 따른 에너지 보급과 유가하락의 편익은 국가별로 차별화 될 것으로 추정**
  - 유가 하락으로 일본과 인도 등 원유 수입대국의 경상수지는 GDP대비 1%~3% 늘어날 것으로 추정, 반면 전통오일 수출 대국인 중동과 러시아의 경상수지는 GDP대비 4%~11% 줄어들 전망[5)]

○ **(시사점) 향후 에너지 패권이 분산되면서 에너지 공급과 가격이 안정화될 전망, 대외의존도가 높은 국내의 경우 에너지 수급선 다변화할 수 있어 에너지 수급 불안정 해소에 도움이 될 것임**

정 민 선임연구원 (2072-6220, chungm@hri.co.kr)

5) PWC, *Shale Oil : the next energy revolution Feb, 2013.*

5. 디지털 소재 혁명(Digital-drived Materials Revolution) 본격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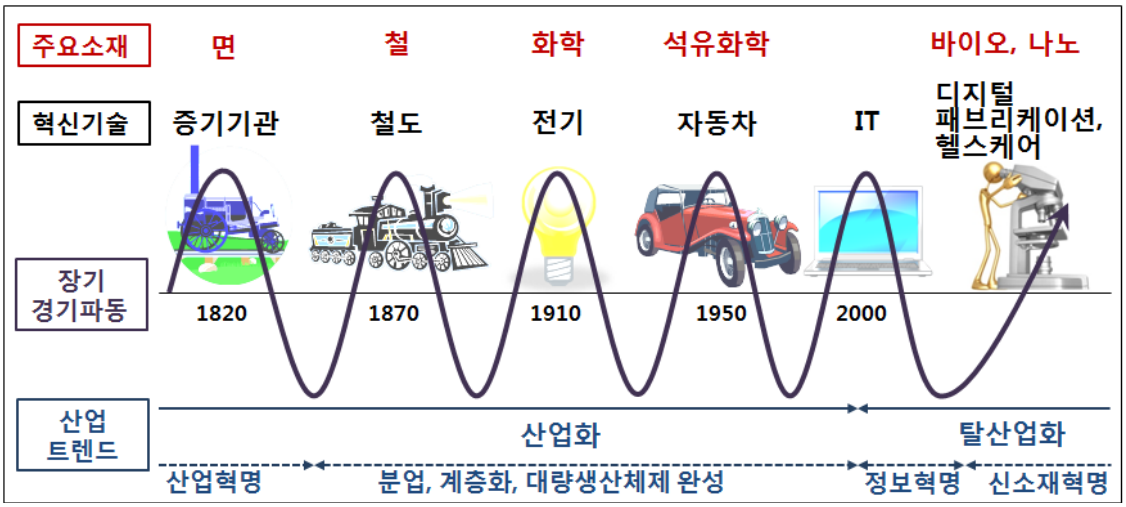
○ (의미) 디지털 패브리케이션의 발전 및 확산으로 디지털 기술에 기반을 둔 신소재[6]의 개발 및 활용이 가속화되면서 새로운 소재 혁명이 시작

- (디지털 패브리케이션)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제품 설계 및 디자인을 의미하며, 3D 프린터는 디지털 패브리케이션을 바탕으로 제품을 생산

○ (내용) 소재의 디지털 설계 및 디자인 기술이 발전하고 제품에서 소재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나노, 바이오 등 신소재의 개발 및 상용화가 시작

- (신소재와 산업 혁신) 세계 산업 혁신의 역사는 해당 시대가 요구하는 신소재 기술의 발전과 동시에 진행
  - 1, 2차 산업혁명에서 주요 소재는 섬유(면)였으며, 현대 산업화 전기인 19세기 후반에는 금속(철)의 대량생산 기술이 산업 혁신을 견인
  - 20세기 들어 화학 및 석유화학 소재가 각광을 받으면서 나일론, 합성고무 등을 사용한 가볍고 강도가 높은 제품들이 개발
  - 21세기 산업 혁신 사이클은 인간과 환경의 지속가능성(의료, 자원) 등이 전망되며, 특히 바이오 및 나노 소재 등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는 중

< 장기 경기 파동 상의 주요 소재 >



자료 : Andreas Goldschmidt.
주 : 장기 경기 파동은 콘트라티에프의 장기 파동.

6) 기존 소재의 결점을 보완하거나 우수한 특성을 창출함으로써 고도의 기능 및 구조적 특성을 실현한 재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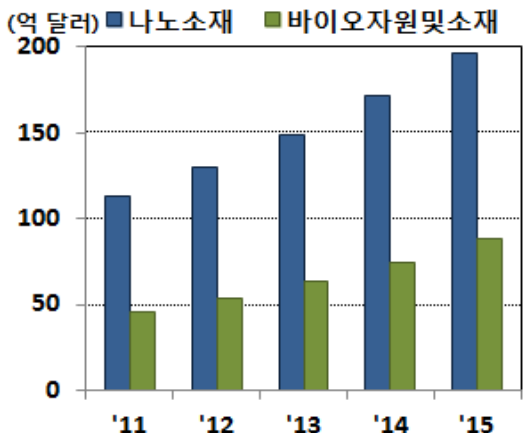
- **(신소재의 중요성 증대) 특히 3D 프린팅을 비롯한 디지털 패브리케이션의 확산 및 생산 방식의 변화로 신소재 개발과 확보의 중요성이 부상**
  - 디지털 패브리케이션의 확산으로 제품 생산의 주체, 장소 등에 대한 한계가 극복되면서 제품 설계 및 생산 주체의 대중화 시대가 도래
  - 이에 따라 제품 생산 능력 자체보다는 생산을 위해 요구되는 재료의 품질과 이를 확보하는 능력이 더욱 중요해질 전망

- **(나노 및 바이오 소재 상용화) 디지털 설계 및 디자인 기술의 발전으로 나노 소재와 바이오 소재의 개발과 산업 활용이 증대**
  - 그래핀[7], 탄소나노튜브[8]를 비롯한 나노 소재의 상용화는 IT는 물론, 태양전지를 비롯한 각종 제조업과 건설업 등의 혁신을 가속화
  - 유전자 지도, 바이오 프린팅 등의 발전으로 바이오소재 배양을 통한 인체 조직과 식량 생산이 현실화되어 의료, 식품 등의 산업 혁신이 예상
  -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소재 기술의 발전에 따라 2011~2015년 세계 나노 시장은 연평균 14.8% 성장하며, 바이오 시장은 18.1% 성장할 전망

< 디지털 패브리케이션과 신소재 혁명 >

디지털 패브리케이션		3D 프린팅		신소재 혁명
디지털 설계 및 디자인		입체 제품 제작		신소재 개발 가속화
IT 기술 발전	+	일반 3D 프린팅 (건설, 제조)	+	비생명 소재 (나노 등)
바이오 기술 발전		바이오 프린팅 (의료, 식품)		바이오 소재 (세포, 유전자)

< 세계 나노소재 및 바이오소재 시장 전망 >



자료 : Nanotechnology,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 **(시사점) 장기적인 관점을 통한 기초 소재 R&D 투자를 확대하되, 유관 기술 간의 중복 회피 및 융합의 노력이 중요**

김필수 선임연구원 (2072-6238, pskim@hri.co.kr)

7) 강도가 높고, 휘어지고 투명한 전도체의 성질이 있어 디스플레이, 태양전지 등에 활용 가능.
8) 철보다 강도가 우수하며, 반도체 성질로도 변형 가능하여 각종 건축 및 운송기기, 반도체 등에 활용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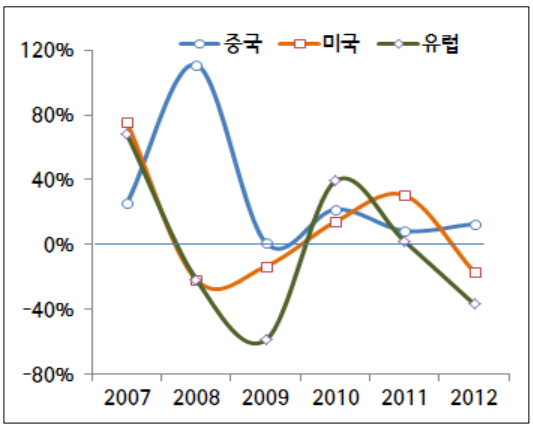
6. 세계 제조업 지형도(Manufacturing Map)의 개편

○ **(의미) 세계 공장으로서의 역할이 점점 약화되고 있는 중국을 대신할 포스트 차이나 국가들이 대두되는 한편 선진국들이 제조업 부흥책을 추진하면서 세계 제조업 지형도가 개편**

- 인건비 상승 등으로 중국에서의 제조 이점이 점점 축소되면서 이를 대체할 새로운 생산 기지로서 신흥국 탐색이 모색

- 선진국에서는 제조업을 일자리 창출과 첨단기술 확보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현상 인식이 확산
  · 현재 선진국에서 해외로 나가는 직접투자는 감소 추세

< 해외직접투자 전년대비증감률 추이 >



자료: UNCTAD.

< 주요국 제조업 강화 정책 동향 >

국가	제조업 강화 정책
미국	- 『경쟁력 강화 재승인법』 (2010) - 『제조업 재생 계획』 (2012.7)
독일	- 『Industry 4.0』 추진 (2011.11)
일본	- 『산업 재흥 플랜』 (2013.6)

○ **(내용) 제조업체의 탈중국화가 가속화되고, 포스트 중국으로서 신흥국간에 각축이 벌어지고, 선진국의 차세대 첨단제조기술의 개발이 촉진**

- **제조업체의 탈중국화 가속화 예상**: 중국 경제성장률이 점차 하락하면서 중국을 수출용 제조기지로 활용한 외국 업체의 탈중국화가 진행
  · 지난 '00년~10년에 평균 0.3%였던 중국 경제성장률이 '10년~20년에는 8.0%, '20년~30년에는 6.0%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자료: 아시아개발은행)

· 지난 2011년 약 20%에 달했던 중국내 외국기업의 고정자산 투자가 점차 축소되어 2013년 11월까지는 4.7% 증가에 불과. 반면에 이 기간에 중국 전체 고정투자는 19.9% 늘어남(자료: 중국통계청, 월스트리트저널)

- **포스트 차이나 각축 전개** : 세계 공장이 되기 위해 신흥국(지역) 간에 해외 자본 유입과 투자를 촉진하는 각축전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
· 주목해야 할 신흥시장으로 ABC, 바트 경제권, GCC, ECOWAS가 있음[9]
· ABC: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를 일컫는 말로, 대규모 경제권이면서, 세계 GDP 대비 비중이 4.5%로 최근 5년 사이 2배 이상 증가
· 바트(Baht) 경제권: 태국, 캄보디아, 미얀마, 베트남, 라오스등 인도차이나 반도 국가들을 지칭하며, 2000년 이후 전세계 생산 비중이 빠르게 증가
· GCC: 중동 6개 산유국간의 협력기구로서 명목 GDP가 2000~2012년까지 연평균 약 13%의 빠른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고, 원유 매장량이 전세계 30%, 천연가스 매장량이 20%를 차지하는 '자원의 경제권'임
· ECOWAS: 서아프리카 15개국의 경제협력체로서 순 FDI 투자 유입 규모가 2000년 19.2억 달러에서 2010년 113.1억 달러로 급증하는 추세

- **첨단 제조 방식의 개발 촉진**: 선진국들은 고부가 융합상품을 개발하기 위해 고수준의 제조공정, 인력 개발과 신소재, 신기기의 개발이 촉진
· 기존 제조업을 고부가화하여 재생하거나, 새로운 첨단기술을 활용한 신제품 개발을 의미하는 첨단 제조방식(Advanced Manufacturing)의 기술개발이 본격적으로 전개
· 선진국의 정부 중심 R&D 추진으로 향후 새로운 제품과 비즈니스 모델 등장이 가속화되고, 장기적으로 글로벌 제조업 리더십의 재편이 예상

○ **(시사점) 신흥 경제권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과 기존 글로벌 전략의 재편이 요구되며, 국내 제조업 역량을 강화하는 종합 지원 정책을 추진**

이장균 수석연구위원 (2072-6231, johnlee@hri.co.kr)

9) ABC(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GCC(Gulf Cooperation Council, 걸프협력회의), ECOWAS (Economic Community Of West African States, 서아프리카 경제협력체).

7. 클라우드 네트워크(Cloud network) 본격화

○ (의미) 클라우드 컴퓨팅과 소셜 네트워크의 발전으로 공유 정보를 활용한 창의적 문제해결 사례가 빠르게 증가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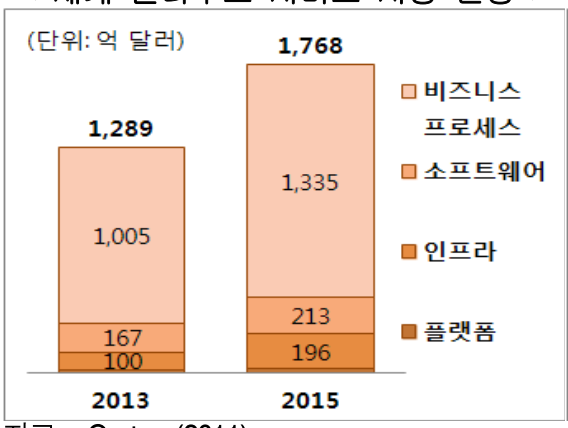
- IT 서비스가 클라우드[10] 기반으로 변화함에 따라 분산된 정보의 연결성이 강화되어 양질의 정보를 쉽게 공유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
  · 세계 클라우드 서비스 시장규모는 2015년 1,768억 달러로 성장할 전망이며,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보안성이 높은 프라이빗 클라우드[11] 도입을 선호

-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세계적 확산으로 디지털 인맥을 활용한 창의적 문제해결 가능성 향상
  · 자발적 참여자 증가, 전문가 커뮤니티 활성화 등으로 공유되는 정보의 질적 수준 및 활용도가 향상됨

○ (내용) 자원 이용의 효율성이 향상되고 산업 가치사슬이 재편되는 가운데, 정보 관리 권한의 중요성이 부각될 것으로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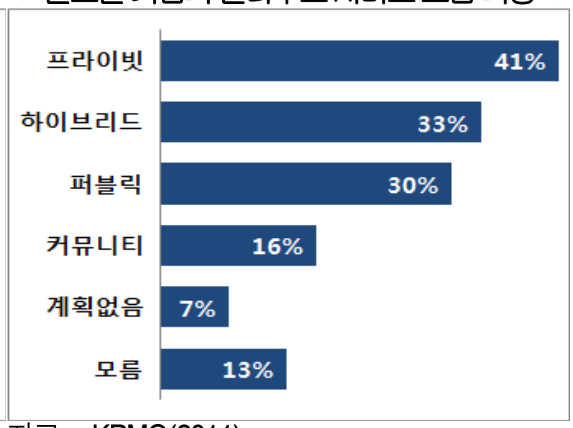
- (자원 이용의 효율성 향상) 경제주체는 클라우드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여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는 한편, 창의적 아웃소싱도 빠르게 확산

< 세계 클라우드 서비스 시장 전망 >



자료 : Gartner(2011).

< 글로벌 기업의 클라우드 서비스 도입 의향 >



자료 : KPMG(2011).
주 : 중복 응답 허용으로 합계는 100% 초과.

10) 클라우드(Cloud)란 개개의 컴퓨터, 모바일기기, 사물 등이 자체 내에 저장되어 있지 않은 데이터를 인터넷 망을 통해 공유하는 서비스로 인프라의 성격을 가짐. 크라우드(Crowd)란 군중 또는 대중을 의미하는데 최근 크라우드 소싱, 크라우드 펀드 등은 목적에 따라 최적의 성과를 달성하기 대중을 활용한 비즈니스 등의 형태를 말함.

11) 퍼블릭 클라우드는 불특정 다수에게 서비스 제공, 프라이빗 클라우드는 내부자에게 제한적으로 서비스 제공, 하이브리드는 일부 데이터 및 서비스에 대해 제한을 설정하는 형태.

· 운전자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도로의 패인 곳을 자동으로 감지하는 앱처럼 모바일기기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시간 및 비용의 절감이 가능
· 산업 전반에서 전 세계의 전문가 및 대중에게 문제를 제시하고 아이디어를 수집하는 형태의 창의적 아웃소싱 사례가 증가

- **(산업 가치사슬 재편) IT 서비스, 소프트웨어, 정보 등의 유통 방식이 변화하면서 산업 내 가치사슬 구조의 변화 발생**
· 구글은 자동차의 부가 기능으로 인식되었던 클라우드 지도 서비스를 바탕으로 무인자동차 경쟁에서 선두를 달리며 기존의 완성차 업체들을 위협
· 책, 영화, 음악 등 문화 콘텐츠의 유통 방식이 변화함에 따라 전 세계의 도서관, 저작권 사업자 등은 새로운 수익구조 창출을 모색
· 교육, 금융, 컨설팅 등 지식기반 산업의 경우 전 세계의 집단지성과 경쟁하거나 협력하는 방식으로 생존을 모색

- **(정보관리권의 중요성 부각) 클라우드 자본을 소유한 빅 브라더들이 등장하면서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및 적절한 통제가 중요한 이슈로 부상**
·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애플 등 클라우드 업계의 거인들은 막대한 자본을 투자하여 사용자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플랫폼을 선점
·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의 이메일, 사진, 쇼핑정보, 검색정보 등을 본인의 자유의사에 의해 통제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점차 감소
· 클라우드 시대의 개인정보 관리, 저작권,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 정부의 규제 등은 주요 현안으로 부각

○ **(시사점) 클라우드 네트워크의 본격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활용하는 한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을 병행**

- 기업은 기획, 자금조달, 디자인, 생산, 마케팅 등 비즈니스 프로세스 전 분야에서 글로벌 집단지성을 활용하여 비용절감과 수익창출의 기회를 포착

- 정부는 공공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를 개혁하는 한편, 개인정보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를 활성화

장우석 연구위원(2072-6237, jangws@hri.co.kr)

8. 호모 로보틱스(Homo Robotics)의 등장

○ (의미) 인간과 로봇의 경계가 불분명한 신인류(호모 로보틱스)가 상상의 차원을 넘어 현실 세계에 출현할 전망

- (로봇의 인간화) 외형뿐만 아니라 지능, 언어소통, 몸짓과 표정까지 인간과 구별이 어려운 인간형 로봇(휴머노이드) 기술이 높은 수준에 도달
  · 휴머노이드(Humanoid)는 인간(Human)에 유사함을 나타내는 접미어 -oid가 붙어서 만든 합성어로 인간의 모습을 닮은 로봇을 의미

- (인간의 로봇화) 신체의 일부분을 전자·기계장치로 대체하는 사례(사이보그)가 단순한 기관에서 복잡한 기관으로까지 확장
  · 사이보그(Cyborg)는 인공두뇌학(Cybernetics)과 생물(Organism)의 합성어로 신체의 일부분을 기계장치로 교체한 인간을 의미

○ (내용) 산업, 생활, 의료, 국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응용 사례가 증가하는 가운데, 보안·윤리·사회규범 등을 둘러싼 논란도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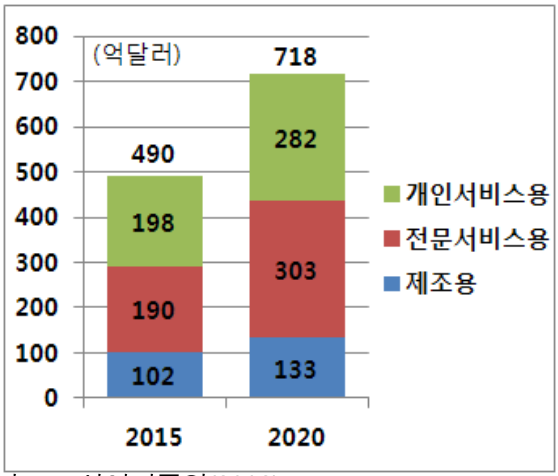
- 명령에 따라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학습·판단하고 의사소통 능력까지 갖춘 인간형 로봇의 등장으로 산업 생산성 향상 및 생활 편의 증대
  ·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 분석 기술의 결합으로 애플의 '시리(SiRi)'와 같이 지식학습, 상황판단, 의사소통 능력을 갖춘 로봇이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

< 호모 로보틱스 관련 주요 기술 >

인체 구조	관련 기술
두뇌	인공지능(AI)
감각기관	센서, 디스플레이
신경계통	신호전달 시스템
동력원	배터리
근육	엑추에이터*
골격, 관절	금속·비금속 부품
피부	나노 신소재

주 : 엑추에이터(actuator)는 전기, 유압, 압축공기 등을 이용하는 구동장치를 의미.

< 세계 로봇 시장 전망 >



자료 : 산업연구원(2009).

· 세계 로봇 시장 규모는 2015년 490억 달러에서 2020년 718억 달러로 연평균 7.9% 성장 전망

- **신체의 복잡한 기관까지 전자·기계장치로 교체가 가능해지면서 장애인, 환자, 노인 등에게 재활의 희망을 제공**
  · 최근 정교하게 작동하는 로봇 팔과 손, 로봇 다리 등이 상용화됨에 따라 세계 의수(義手)·의족(義足) 시장은 큰 변화에 직면
  · 감각기관 및 신경계통의 문제로 언어, 시각, 청각 등의 장애를 겪고 있는 환자와 노인들을 위한 이식용 전자·기계장치도 상용화 단계에 도달
  · 2013년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안경의 카메라에 찍힌 이미지를 전기신호로 변환하여 시각장애인의 망막에 전달하는 '생체공학 눈'의 시판을 승인[12)]

- **한편, 군사용 로봇의 살상능력 증가, 인간(장기) 및 생물체 복제 등 생명의 존엄성 위협에 대한 우려도 증가**
  · 인간의 제어와 통제 없이 스스로 목표물을 찾아 공격하는 능력을 가진 로봇의 등장 가능성 증가
  · 인체 장기의 교체 및 판매, 인간 및 생물체 복제 등이 생명의 존엄성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상존

○ **(시사점) 지능형 로봇 및 생체공학 관련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하여 기술력을 향상시키는 한편, 사회·윤리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

- 제조 및 서비스용 로봇시장 활성화, 생체 이식용 전자·기계장치의 다양화에 대응하여 연구개발을 확대하는 한편 법·제도의 정비에 주력

- 과학기술계, 의료계, 인문학계, 종교계는 로봇과 생명 윤리에 대한 공론화 및 토론을 활성화하여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

장우석 연구위원(2072-6237, jangws@hri.co.kr)

12) CBS News, "FDA-approved bionic eye Argus II aims to restore some vision in the blind", 2013.10.7.

9. 요우커(遊客)의 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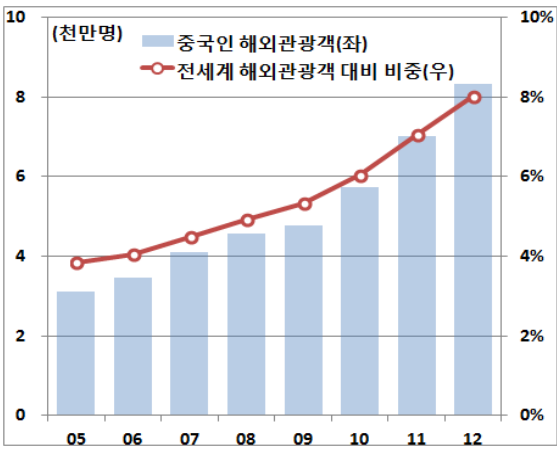
○ (의미) 중국인 관광객(요우커)이 세계 관광시장의 최대 고객으로 부상

- (배경) 일인당 소득 증가 등으로 인해 '요우커의 진화'가 가속화되기 시작
  - 요우커(遊客)는 중국어로 관광객을 의미하는 일반명사이지만, 최근에는 중국인 관광객을 의미하는 고유명사로 사용되고 있음
  - '요우커의 진화'는 일인당 소득 증가, 위안화 가치의 상승으로 인한 실질 구매력 증가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발생
  - 중국 정부는 해외관광에 대한 전반적인 규제를 완화하는 동시에 저가의 해외여행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 요우커의 질적 수준 제고를 추진

○ (내용) 중국인 관광객이 양적으로 급증하고, 소비패턴이 질적으로 고급화

- (관광객 급증) 중국인 해외 관광객은 2005년 이후 연평균 15.1% 성장세
  - 중국인 해외 관광객은 2005년(3,100만명)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특히 2010년 이후 급증하기 시작하여 2012년 약 8,300만명에 이름
  - 전세계 해외 관광객 중에서 중국인 해외 관광객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5년 3.8%에서 2012년 8.0%로 증가
  - 중국인 해외 관광객 중에서 한국을 방문하는 관광객 비중은 2012년 기준 3.4%(284만명) 수준

< 중국인 해외 관광객 규모와 비중 >



자료 : CEIC, World Tourism Organization.

< 주요국의 해외 관광객 지출 비교 >

(단위: 억달러)

	2005년		2012년	
	지출	비중	지출	비중
중국	**218**	**3.2%**	**1,020**	**9.5%**
독일	727	10.7%	838	7.8%
미국	692	10.2%	835	7.8%
영국	596	8.8%	523	4.9%
러시아	178	2.6%	428	4.0%
프랑스	312	4.6%	372	3.5%
캐나다	184	2.7%	351	3.3%
일본	375	5.5%	279	2.6%
이탈리아	224	3.3%	264	2.5%
전세계	6,800	100%	10,736	100%

자료 : World Tourism Organization.
주 : 국제수지표상의 관광 지출금액 기준.

- **(소비 규모 급증) 2012년 중국인 관광객이 해외에서 소비한 금액은 1,020억 달러로 세계 1위를 차지**
  - 중국인 해외 관광객의 지출액은 2005년(218억 달러) 이후 연평균 24.7%씩 증가
  - 중국인의 해외관광 지출액은 2012년(1,020억 달러)에 전년도(726억 달러)에 비해 40.0% 급증하여 미국·독일을 제치고 최초로 세계 1위에 등극
  - 중국인 해외 관광객이 소비하는 지출액 중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4.0%(5억 달러)에서 2012년 3.3%(34억 달러)로 소폭 감소

- **(소비 트렌드 변화) 중국인 해외 관광객의 소비 트렌드는 저소비형, 단순 관광형에서 고소비형, 복합 관광형으로 변화하기 시작**
  - 쇼핑·의료와 관광을 결합한 복합형 관광객이 단순히 보고 즐기는 관람 및 레저형 단순 관광객에 비해 상대적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 중국인 해외 관광객의 일인당 평균 지출액은 2005년 701달러에서 2012년 1,226달러까지 지속적으로 증가
  - 고급 소비재에 대한 중국인의 선호도 증가는 구매력으로 뒷받침되고 있으며, 중국인은 이미 유럽 사치품 시장의 50%정도를 차지하고 있음[13)]
  - 한국을 방문하는 중국인 관광객 중에서 일인당 지출액이 3,000달러 이상인 비중은 2008년 8.5%에서 2012년 20.1%로 급격하게 증가[14)]

○ **(시사점) 급증하는 '요우커'에 대응하는 맞춤형 전략을 마련하고 각종 제도 개선을 통해 중국인 해외 관광객을 선점**

- 고소득 계층을 위한 명품 관광, 중산층 소비자를 위한 문화체험 관광, 의료-문화-쇼핑 등을 연계한 복합 관광 상품 개발

- 중국인이 주로 사용하는 음식·숙박 등의 편의시설 확충, 입출국 절차의 간소화, 중국인 환자가 병원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등 제도 개선

안중기 연구위원 (2072-6242, joonggiahn@hri.co.kr)

13) 중국투자뉴스(KOTRA, 2013.09.06) 참조.
14) 현대경제연구원, 최근 관광·레저산업의 주요 특징과 시사점, 현안과 과제(13-57), 2013.12.05.

10. 초국적 인류(Transnational Human)의 출현

○ **(의미) 국적을 초월해 인류의 보편적 가치, 공동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활동을 벌이는 '초국적 인류'가 점차 확산되고 있음**

- 초국적 인류는 BOP 비즈니스[15], SNS 집단지성 실현, 노벨평화상 수상 등의 성과로 자신들의 지지도를 얻어가고 있고 활동영역도 확대하고 있음
  · 한편 미국국가정보위원회(NIC)도 'Global Trends 2030'에서 글로벌 NGO를 비롯한 '비국가 집단'들의 세력 확대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

○ **(내용) '초국적 인류' 집단은 국제적으로도 성공적인 활동을 보여주고 있으며 향후 이들에 대한 지지도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음**

- **(정치) 온라인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는 '초국적 이익 집단'들의 정치적 영향력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
  · IT의 발전에 따라 국적을 떠나 수많은 사람들이 온라인상에 모여 국가 권력을 감시하고 민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음
  · 세계적으로 수천 명의 회원을 보유한 국제 해커 집단 '어나니머스'는 2011년 아랍 민주화 운동 당시 이집트와 튀지니의 민주화 운동 세력을 지원
  · 한편 초국적 정보공개운동을 실시 중인 '위키리크스'도 각종 기밀문서 폭로로 세계적으로 막대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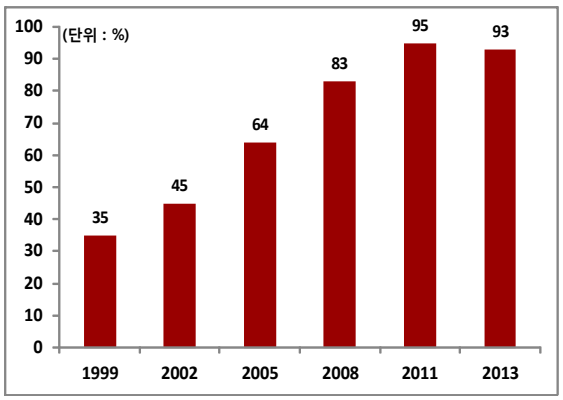
- **(경제·경영) 최근 수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에 대해 관심을 갖고 활동영역을 넓혀가고 있는 추세**
  · 세계화에 맞춰 글로벌 기업들은 이윤과 명분을 함께 추구하기 위해 사회적 기업 확대, 최하소득계층(BOP) 비즈니스 등을 확대하고 있음
  ·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국제기구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에 따르면 세계 250개 기업의 '지속가능보고서' 제출 비율이 1999년 35%에서 2013년 93%로 약 2.7배 증가
  · 일례로 다국적 기업인 유니레버는 옥스팜(Oxfarm)과 같은 글로벌 NGO를 비롯해 SNS 활용 등으로 저소득국의 안전한 물 공급 사업[16] 등을 지원

15) 최하소득계층(BOP : Bottom of Pyramid) 비즈니스 : 연간 3000달러 미만, 하루 5달러 미만으로 생활하는 BOP계층은 세계 인구의 70%를 차지하며 소비시장 크기가 5조 달러에 이를 정도로 잠재력이 풍부함.

- **(사회·문화) 최근 IT기술의 발전으로 국경의 의미가 약화되었고, 특히 SNS를 통한 공동의 관심, 도구를 공유하는 모임이 확산되고 있음**
  - IT의 발전은 세계인들의 물리적 시간을 수평적으로 만드는 데 큰 기여를 했고, 국적을 초월하여 네트워크를 보유할 수 있도록 지원
  - 특히 SNS는 집단지성이 작동할 수 있는 훌륭한 기반을 제공하고 있어, 빠른 시간 내에 많은 사람들의 연대를 가능케 하는 장점이 존재
  - SNS 서비스의 대표주자격인 페이스북(11억 9,000만 명)과 트위터(2억 3,000만 명)의 이용자수는 중국의 인구와 유사한 약 14억 명에 달해 파급력을 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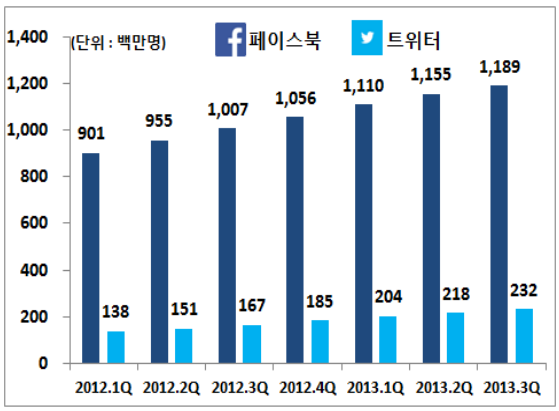
- **이밖에 평화·인권·환경 등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실현하는 글로벌 NGO들의 성공 사례도 주목받고 있음**
  - 전 지구적으로 인권, 평화 등과 같은 인류 보편적 가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과거에 비해 NGO의 활동영역이 더욱 확대되고 있음
  - 특히 국제지뢰금지운동(ICBL), 화학무기금지기구(OPCW)와 같은 초국적 NGO는 노벨평화상[17]을 수상하는 성공 사례를 기록

< 세계 250개 기업 지속발전보고서 발간 현황 >



자료 : GRI, KPMG Reporting 2013.

< 페이스북, 트위터 이용자 현황 >



자료 : investor.fb.com, SEC.

○ **(시사점) '초국적 인류' 시대를 대비하여 정부, 비정부, 국제기구 등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초국적 인재 양성 또는 글로벌 리더십을 발굴해야 함**

이용화 선임연구원 (2072-6222, yhlee@hri.co.kr)

16) 유니레버는 '지속 가능한 삶의 계획'이라는 경영전략을 시행중이다. 특히 'Waterworks'프로그램을 통한 물 공급 사업을 인도 보팔지역에서 진행 중이며, 현재까지 7만 5천 명에게 혜택을 주었고, 페이스북도 공동 참여 중임.

17) 글로벌 NGO의 노벨평화상 수상은 1997년 ICBL(국제지뢰금지운동), 1999년 MSF(국경없는 의사회), 2007년 IPCC(세계기상기구), 2013년 OPCW(화학무기금지기구)에 이름.

주요 국내외 경제지표

□ 주요국 성장률 추이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연간	1/4	2/4	3/4	4/4	연간(E)	1/4	2/4	3/4
미국	1.8	2.8	3.7	1.2	2.8	0.1	1.6	1.1	2.5	3.6
유로 지역	1.4	-0.6	-0.1	-0.2	-0.1	-0.6	-0.4	-0.2	0.3	0.1
일본	-0.6	1.9	4.8	-0.9	-3.6	1.0	2.0	4.3	3.8	1.9
중국	9.3	7.8	8.1	7.6	7.4	7.9	7.6	7.7	7.5	7.8

주 1) 2013년 연간 전망치는 IMF 2013년 10월 기준임.
2) 미국, 일본은 전기대비 연율, EU는 전기대비, 중국은 전년동기대비 기준임.

□ 국제 금융 지표

구분		2011년말	2012년		2013년		
			6월말	12월말	12월 20일	12월 26일	전주비
해외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1.88	1.65	1.70	2.89	2.99	0.10%p
	엔/달러	77.66	79.37	85.86	104.25	104.45	0.20￥
	달러/유로	1.2955	1.2437	1.3222	1.3655	1.3679	0.0024$
	다우존스지수(p)	12,218	12,880	12,938	16,221	16,480	259p
	닛케이지수(p)	8,455	9,007	10,395	15,870	16,174	304p
국내	국고채 3년물 금리(%)	3.34	3.30	2.82	2.88	2.88	0.00%
	원/달러(원)	1,151.8	1,145.4	1,070.6	1,061.2	1,059.3	-1.9원
	코스피지수(p)	1,825.7	1,854.0	1,997.1	1,983.4	1,999.3	15.9p

□ 해외 원자재 가격 지표

구분		2011년말	2012년		2013년		
			6월말	12월말	12월 20일	12월 26일	전주비
국제 유가	WTI	99.22	84.86	90.89	99.06	99.57	0.51$
	Dubai	104.89	92.89	107.99	107.09	108.50	1.41$
CRB선물지수		305.30	284.19	294.78	283.12	282.91	-0.21p

1) CRB지수는 CRB(Commodity Research Bureau)사가 곡물, 원유, 산업용원자재, 귀금속 등의 주요 21개 주요 상품선물 가격에 동일한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하는 지수로 원자재 가격의 국제기준으로 간주됨.

□ 국내 주요 경제지표 추이

구 분		2011	2012			2013			2014(E)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E)	연간(E)	
국민계정	경제성장률 (%)	3.7	2.6	1.5	2.0	1.9	3.3	2.6	3.8
	민간소비 (%)	2.4	1.2	2.2	1.7	1.6	2.3	2.0	2.7
	건설투자 (%)	-4.7	-1.9	-2.4	-2.2	5.2	2.5	3.7	2.5
	설비투자 (%)	3.6	2.3	-6.1	-1.9	-8.2	5.8	-1.5	6.7
대외거래	경상수지 (억 달러)	261	163	317	481	298	397	695	490
	무역수지 (억 달러)	308	109	174	283	200	268	468	399
	수 출 (억 달러)	5,552	2,750	2,729	5,479	2,765	2,883	5,648	6,123
	(증가율, %)	19.0	0.5	-3.1	-1.3	0.6	5.6	3.1	8.4
	수 입 (억 달러)	5,244	2,641	2,555	5,196	2,566	2,614	5,180	5,724
	(증가율, %)	23.3	2.3	-4.0	-0.9	-2.9	2.3	-0.3	10.5
소비자물가 (평균, %)		4.0	2.7	1.7	2.2	1.4	1.5	1.4	2.4
실업률 (평균, %)		3.4	3.5	2.9	3.2	3.4	3.2	3.3	3.1
원/달러 환율 (평균, 원)		1,108	1,142	1,112	1,127	1,104	1,095	1,098	1,070

주 : E(Expectation)는 전망치.